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엄정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22.(금) 서울경제TV, “최혁진 의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서 채용비리·보조금 횡령 정황”...관리 부실 강력 비판”
강원도민일보, “최혁진 의원,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운영 용역' 관련 채용비리·보조금 횡령 정황 비판” 기사 관련

-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지원한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운영 용역'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서 채용비위와 보조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23년까지는 창업지원 운영기관이었으나, '24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이 아님
- 고용노동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점검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선정 및 평가, 사업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044-202-7422)

